

삼위 일체 대축일

기도서 P. 312 C해
1독 (잠 언 8장22-3절)
2독 (로 마 5장 1-5절)
복음 (요 한 16장 12-15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전 한 상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 론□

삼위일체 대축일



서 용 복 신부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창세기1장26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요한. 10장 20절) “당신들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마태 28장 19절)

위의 성경구절에서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천주성삼의 관계가 서로 하나와 같이 같다는 점이다. 홀로 한 분이신 천주께 성부 성자 성령 세위가 계시다는 것은 천주께서 계시해주신 신덕도리이다. 가톨릭 교회는 계시종교임으로 우리 지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교리들도 믿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 자체이신 천주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진실하신 천주님의 계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다.

삼위일체는 대내 관계에만 서로 다를 뿐이오 대외 업적에는 공통 공동적 즉 동일한 원인이 되신다. 대외 업적은 전능으로 행하신다. 이 전능은 천주성에 있는 것이다. 천주성이란 삼위께 공동적인만큼 대외 업적도 역시 공동적이다.

보통으로 창조는 천주성부께 돌리고, 강생구속은 천주성자께 돌리고, 예언과 성화는 천주성령께 돌린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업에 있어 천주성으로 하시는 때는 삼위를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따라서 천주삼위는 우리가 받는 모든 은총의 원천이 되신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성사도 성삼의 이름으로 집행한다. 우리의 육신도 천주성삼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오묘한 섭리아래 다스려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도 성삼의 이름으로 성세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삼께서 내려 주시는 무수한 성총의 힘으로 자라나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천주성삼은 현세와 후세를 위해서 크고 적은 은혜를 우리에게 무수히 베풀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삼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번씩 염하는 십자성호는 우리로 하여금 천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해준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신 천주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발하며 찬미하고 천주성삼께 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주 외우는 십자성호경을 아무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성삼의 은혜를 잠잠히 생각하며 정성되이 굿도록 하고, 모든 일을 천주성삼의 이름으로 성삼의 영광을 위해 바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임신부)



죄없는 사람이 먼저...

—교도소내 성모상 제막식 참관기—

15척(약 4.5m) 높은 회색빛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주 교도소 안에 성모 마리아상이 모셔졌다. 우리 나라 지도 모형으로 가꾸어진 화단에, 그나마 그 위치가 평양쯤 되어 보이는 곳이어서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

여하튼, 교도소 안에 세워진 성모상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돋보인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무엇인가를 생각해 해준다. 경건하게 해준다. 참으로 잘 세워진 성모상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소망을 지닐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성모상을 세우고 싶었다는 교도소장의 인삿말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곳에 모셔진 성모님은 순간의 실수로 고통과 근심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시리라 믿는다”는 기능자의 답사에서 신앙을 배웠다.

신문 사회면을 불결한 모습으로 메꾸는 사진들이 퍼 많다. 어떤 것은 아예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버리는 더 추악한 일들도 많다. 그래서 법이라는 그물을 통해 거두어 가버리는 대어(大魚)와 그물을 찢고 빠져나가는 중어(中魚)는 더욱 배를 기름지게 하고, 송사리만 걸려든다. 참으로 누가 이 높은 담장 안에서 회오(悔悟)의 수신(修身)에 전념해야 하는가?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요한 8,1-11)

숲 정 이 산책



총화단결 합시다



사제양성 후원사업 현황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사제양성 후원사업의 현황을 197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당별 1인 평균액을 놓고 「나와 너, 나와 우리」라는 관계를 묵상해 봅시다.
「내 본당의 일과 교구 차원의 일」?

지구	본	당	사순절	성금	신	자 수	1인	평균	개	인	별	최	고	사제양성	후원	기금
1	지	구	고	창	100,000원	886명	113원	이	면	우	(6,550)			50,000		
					60,300 "	2,735	34 "				50,000					
					55,874 "	1,763	34 "									
					77,004 "	1,667	34 "				88,400					
					181,361 "	2,240	71 "	김	중	삼	(31,000)	550,000				
2	지	구	대	울	99,910 "	790	126 "	범	선	배	신	부	(7,165)	238,010		
					131,371 "	2,500	53 "				697,000					
					115,000 "	1,119	103 "	김	중	현	(5,245)					
					248,987 "	2,226	112 "	박	노	순	(14,700)	750,000				
					100,100 "	1,125	89 "					200,000				
3	지	구	고	산	150,093 "	2,533	59 "						63,200			
					187,915 "	1,769	106 "	최	병	윤	(10,665)	184,658				
					193,875 "	1,556	125 "	곽	루	시아	(11,065)	55,000				
					142,050 "	1,415	100 "					240,435				
					257,866 "	2,642	98 "					300,000				
4	지	구	노	덕	280,480 "	2,440	115 "	김	기	수	신	부	(10,000)	150,000		
					129,650 "	2,172	60 "	김	용	주	(7,590)					
					188,947 "	1,306	145 "	박	중	근	신	부	(14,235)	30,000		
					119,067 "	1,794	65 "	이	복	주	(9,040)	1,245,574				
					42,077 "	661	64 "	정	만	성	(5,150)	250,000				
5	지	구	금	남	210,600 "	3,846	55 "	정	주	복	(5,790)		507,000			
					157,339 "	3,450	46 "	이	관	형	(11,220)					
					80,375 "	1,311	61 "					150,000				
					111,120 "	1,221	91 "	김	정	숙	(7,550)	54,000				
					70,000 "	869	81 "					100,000				
기	타	이	금	남	60,560 "	1,065	57 "									
					114,162 "	632	181 "									
					94,678 "	885	107 "	김	막	레	(6,000)					
					71,010 "	2,450	29 "					644,000				
						2,923										
47,760 "	6	7,960 "	안	복	진	(15,040)	50,000									
								759,045								
4,165,204 "	60,959	68 "	김	중	삼	(31,000)	7,656,322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삼화은수 보일러 ☆

☆특징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열전 100% 효율, 99% A.I.인코트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합<가 가정에도 저렴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성서 교실 ⑩ □

갈라디아서

강 덕 창 신부

저자와 수신인: BC.279년에 인도-아리안 계통의 갈라타이라는 아시아 민족은 그리스를 침공한후 헬레스폰드 해협을 건너 지금의 터키 북부에 정착하였다. 그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치하(BC.25)에서 터키 남부까지 병합하여 갈라디아라는 명칭으로 로마의 한 주(州)를 이루게 되었다. 사도 바오로는 제 1차 포교 여행시에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방에 산재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집필장소 및 연대: 바오로 사도가 두번이나 갈라디아 방문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아 (4,13) 제 2차 포교 여행 후에, 아마도 제 3차 포교 여행중 에페소에서 이 서간을 기록했을 것 (AD.54-55년경)이라는 주장과 제 1차 포교 여행후(AD.49)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길이 없다.

집필동기 및 내용: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및 기타지역의 잡다한 민족들이 혼거하고 있었다. 바오로 사도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뒤, 유대계 신자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입교할 때는 유대인 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바오로는 이들의 잘못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서간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 문화와 풍속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유대교의 풍속인 할례와 율법준수는 방해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이방인들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할례와 율법을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다(사도행전 15장). 그런데 갈라디아 유대인들은 재차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서 바오로는 단호하게 할례와 율법의 폐기를 선언하고, 우리의 구원은 "신앙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율법 자체나, 그것을 준수하는 데서 얻어지는 노력의 댓가가 아님을 강조한다(2,16). 이로써 당시의 이방인들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느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4,6). 이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삼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므로 종이나 하인들과 같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자녀들이다. 이러한 신앙인들에게는 율법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된 신앙의(5,6) 행위만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사시게 할 때(2,20)" 완성된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신앙을 갖기 전의 「나」(小我)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람(요한 3,5), 즉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의 원리가 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 19,8, 갈라 5,4)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자들이며,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로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다(5,22). 결국 이 서간의 의도하는 것은, 구원이란 피상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총의 결과로써 신앙인에게 약속된 상속인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김제 천주교회)

□ 본지는 지난 8월 29일(제197호)까지 9회에 걸쳐 **교리 교실**이라 이름을 부쳐 신약성서의 4복음과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토 전후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소개한 바 있었다. 그간 편질실 사정으로 잠시 쉬고 이제야 **성서 교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다시 계속함에 양해를 구한다. (편집자)

요심이 (201) 김병오



이신경외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집)
전화 ⑩-9793
원장 이종두(헬리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밖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양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각종 사진 출장
카메라 대여, 학교 앨범취급

중앙사진관

한원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7901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양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명)
전화 ⑩ 1665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⑩ 4577)

많이 찾아주세요

군산梨花치과의원

박안드레아(차운)
☎ 87111(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극장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전북 의료보험 협동조합 77년도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간: 6월 1일-7월 31일, 장소: 전주 성모병원)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 통장을 지참하고 건강진단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부로)
 2. 혼인문제 상담일 (6월 9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3. 가톨릭 약사회 연수회 안내 (6월 15일<수> 12시-16일<목> 오후 1시, 15일 11시까지. 접수 바람)
전주 교구 내에서 활동하시는 가톨릭 약사는 누구나 참여합니다.
 4. 제 3 지구(고산·삼례·여산·이리·황등) 학생회 체육대회(오늘 오전 9시, 삼례 종합 중학교)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6월 6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모두 모여 기도합니다)
 6. 제 3 지구 각 본당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위해 본당 신부 교체 주일미사 봉헌 및 특별강론(오늘)
고산-서석기 신부(삼례), 삼례-문규현 신부(고산), 여산-안용기 신부(주현동), 주현동-김반석 신부(여산), 창인동-김기수 신부(황등), 황등-김용태 신부(창인동)
- 평일 임시총회(6월 12일 오전 10시, 교구청) 각 본당 사도회장과 교구단위단체의 대표는 빠짐없이 참석바람
 금주의 방송안내 문화방송...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원 신부 방송
 서해방송...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한기호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김진복
 보좌 신부 이복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 후, 강당
 2. 방지거 3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반, 강당
 3. 교리교사 야유회: 6일<월>, 진안 마이산
 4. 복사단 야유회: 6일<월>, 관촌 사진대
 5. 상지회 창립 총회: 8일<수> 오후 6시 반, 가톨릭 센터 (저녁식사 제공)
 6. 신심 단체 가입안내: 신영세자와 견진자들이 적성에 맞는 단체에 가입 바랍니다
 7. 미사시간 엄수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신영세자(일반)들께서 사제관에 벽시계 증정
 지난주 봉헌금: 139,516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박용홍
 사도 회장 박용홍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사도회 임원, 각 단체의장께서는 꼭 참석하세요
 2. 재속 형제회 도지부 지도자 강습회: 6일<월>, 기도 누락합니다
 3. 재속 3회 청년회 모임: 오늘 저녁미사 후,
 4. 병자 봉성체: 7일<화> 오후
 5. 본당 사도회장님 정을 배영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영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47,925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덕진동 가정 방문: 1-3반(8-9일), 4-7반(10-11일), 반장님들 제 날짜에 본당에 나오세요
 2. 신축위원 임원 회합시간 변경: 토요일로, 재정 검토 확인에 협조 바람
 3. 청년회, 학생회 합동 공소 모내기 봉사활동
 4. 신축헌금 감사합니다: 소병을, 유명수(각 10만), 유아라(3만), 최정자(15천), 익명(1만), 박재근(3천) 익명(2천), 조안나, 박순녀(각1천), 총계 6,312,000원
- 지난주 봉헌금: 48,29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임원및 반장님들 꼭 참석하세요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신자들의 기도: 김성원, 임한철, 김인식(안나), 박종호
 4. 미사시간 변경: 매주<수> 오전 5시 반 저녁미사 없음
 5. 주민등록증 습득안내(지난 주일)...찾아 가세요
김정민(정읍군 산외면 화죽리 596)
- 지난주 봉헌금: 35,2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 후
 2. 반상회: 1반(7일), 2반(8일), 3반(9일), 4반(10일)
 3. 행복한 가정 운동 교육: 19일(부녀 주일) 10시 미사 후
 4. 밀린 교무금 조속 납부로 교회살림 도움시다
- 지난주 봉헌금: 33,085원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중·고등학생회 월례회: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3. 아동 미사: 매주<토> 오후 4시, 귀염둥이들 꼭 보내세요
 4.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임원님들 꼭 참석하세요
 5. 의무금 봉헌에 정성다해 교회운영 도움시다
- 지난주 봉헌금: 72,03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성
 사도 회장 유석종

- ※ 새성당 기공식: 오늘 오후 2시, 호차동 아파트
1. 사도회: 저녁미사 후
 2. 성화회: 10시미사 후
 3. 유아세례: 2시 미사후
 4. 견진 성사: 10시 미사중<주교님 집전>
 5. 묵주의 기도: 10만번중 51,996번
- 지난주 봉헌금: 126,790원

- 새성당 신축헌금: 전동-정인찬(40만), 이금용(20만), 은노균, 조일주(각10만), 김동철(5만), 이춘례(1만), / 교동-김공선(10만), 김금희(2만), 이평석, 남복성(각1만)/ 동완산동-이영태, 이병식(각50만), 이광진(22만), 박동수(15만), 최병례, 이덕수(각10만), 배양철(6만), 이주형, 홍종식, 이상복, 조재복, 최병수(각5만)/ 풍남동-익명(50만), 이관형(30만), 유기동, 김남수, 유공수, 익명(각10만)백복체(10만, 반지5돈), 권태욱(7만), 김은순, 박경근, 탁봉애, 오봉선(각1만), 오남례(1만, 반지3.5돈), 태복례(3만, 반지1돈), 차루시아(반지3돈)/ 경원동-김종화(10만), 김병구(5만)/ 다가동-유춘경(2만), 양일순, 홍순녀(각1만)/ 남노송동-오옥순(5만)/ 서학동-박성호(20만), 조민제(5만)/ 기타-최복순부부(반지5돈), 익명(2돈), 익명(100만), 메레사, 김베로니카(각10만), 김병수(3만)계601만원, 금품19.5돈
 누계: 15,098,000원, 금품47.5돈